



아산캠퍼스

환골탈태! 나비와 함께 꿈을 이루다!

유원대학교(U1대학교)는 브라질에서 시작된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이르러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와 'U are the only I'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우리 사회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졸업생 취업에 자신감 넘치는 대학, 학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교육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고 있다. 유원대학교를 만나면 4년 후 학생의 꿈과 비전이 현실이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연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유원대학교
 지난 6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한 '붉은점모시나비' 30쌍을 유원대학교 캠퍼스 내에 방사했다. 유원대학교는 붉은점모시나비 애벌레의 먹이인 기린초가 다량으로 서식할 정도로 자연환경 보전이 잘 된 청정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연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는 유원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수도권에서 통학 가능한 아산캠퍼스
 유원대학교는 지역산업 및 보건, 교육 밀착형 학과 중심의 영동캠퍼스와 IT, 공학 및 한류문화학과 중심의 아산캠퍼스로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아산캠퍼스는 KTX 천안아산역과 전철역인 아산역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서울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40분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에서도 통학할 수 있다. 아산캠퍼스 주위에는 탕정 삼성LCD와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첨단 산업단지들이 대거 자리 잡고 있어 다양한 산학 협력 및 연구 활동이 가능하고, 졸업 후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유원대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지역 밀착형 융합기술 기반의 휴먼융합서비스 구현'이라는 혁신 전략으로 응모해 12개 지원 대학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사업은 학문분야 특성화(U-휴먼케어, U-Mobility)와 기능별 특성화(U1 스킴링)에 따라 지역밀착형 U-휴먼케어서비스 구축을 위한 인재양성, 지역산업과 일체형 산학모델개발 등 9개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정 대학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2021학년도 학과 신설
 유원대학교는 경찰보안, 소방안전, 법무행정 등 3개의 전공으로 2021학년도부터 공공인재행정학부(입학정원 90명)를 아산캠퍼스에 신설한다.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3개의 전공을 연계해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개설한다. 또 휴먼서비스대학의 와인사인언스학과와 문화복지융합학과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이규훈 입학학생처장

환골탈태



창의적 실용적, 융합적 학문으로
 하루가 다르게 학생을 발전시키다
건(세울 建)방(방향 方)진(참 眞)대학

- 2019~2021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
- 최초합격자장학금(150만원)
- 지역인재장학금(150만원)
- 담임선생님추천장학(100만원)
- 신입생 기숙사 100%수용
- 최저학력기준 없음
- 2개 캠퍼스간 상호전과 가능



유원대학교는 금강환경청과 함께 멸종위기 붉은점모시나비 보호에 앞장섭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나비목 호랑나비과 모시나비속에 속하는 곤충으로 산지나 평지의 나무가 별로 없는 풀밭에서 산다. 한국에서는 강원도 삼척과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가 2016년 환경부 생태조사 과정에서 영동에도 붉은점모시나비가 서식하는 게 처음으로 확인됐다.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2010년부터 복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환경부가 2018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Ch 카톡에서 유원대학교 채널 추가하세요 +

유원대학교를 채널 추가하시면 언제든지 1:1 입시상담이 가능합니다.